

대한민국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중단 없는 학습을 위한 과감한 도전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발간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2020년은 한국의 교육 현장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도전과 긴장을 이어갔던 한 해였습니다. 신학기를 앞두고 코로나 확진자가 점차 증가하여 2020년 3월에는 개학을 연기하였고, 4월에는 전면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전쟁 중에도 ‘천막 학교’를 운영했던 대한민국 교육 역사 70여 년을 돌아본다면 학교가 문을 열지 못한 상황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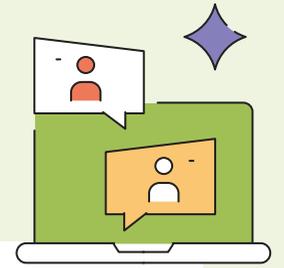
전면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을 온라인 공간에서 만났던 일은 모든 교육 구성원에게 낯설고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학생, 학부모 모두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기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안전할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중단 없는 배움을 위해 교사들은 원격수업을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콘텐츠를 만들었고, 민관이 협력하여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을 위해 스마트기기와 통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말에는 대규모 국가시험인 수능시험을 무사히 치러내면서, 한국의 교육은 ‘현장의 힘을 모으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배움과 소통은 아이들의 권리이자 아이들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은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현장과 소통하며 철저한 방역 안전망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나 정서·신체 발달이 뒤처지지 않도록 학생들의 학업과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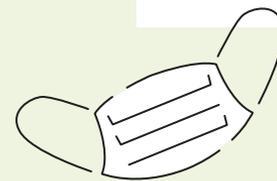
코로나19의 빠르고 완전한 종식을 기원하며, 한국 교육의 코로나19 대응 기록이 앞으로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CONTENTS



01 개요	K-방역 체계	03
	숫자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04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06

02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대응 체계	09
	학사운영	11
	온라인 개학	14
	학교 방역 시스템	16
	코로나19 예방접종	19
	돌봄 지원	20
	각종 시험	22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24
	법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26
	국제협력	28
예산지원	30	
미래교육	31	





K-방역 체계

K-방역 3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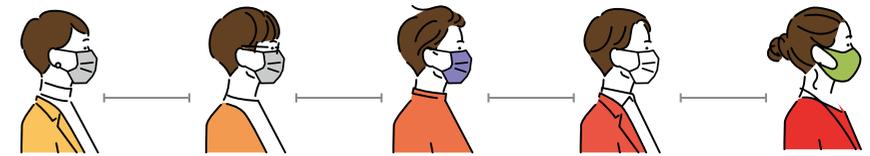
Test 검사·확진



Trace 역학·추적



Treat 격리·치료



생활방역

지역유행단계

전국 유행 단계

구분	1 단계	1.5 단계	2 단계	2.5 단계	3 단계
개념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준수사항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적 활동을 유지 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	위험 지역은 철저한 생활 방역	위험 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 이용 자제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 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거리두기 단계별 등교원칙 (2020.11.7~2021.6.1)	밀집도 2/3 원칙, 조정 가능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 (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학원, 직업훈련기관 방역조치	기본 방역수칙 세 가지 의무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①안과 ②안 중 선택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집합금지 (원격수업 가능)

숫자로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국내 확진자 수

148,647명

국내 사망자 수

1,992명

치명률

1.34%



(21.6.15 기준)

국외 확진자 수

175,910,951명

국외 사망자 수

3,800,592명

치명률

2.16%



(21.6.15 기준)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발생 현황

2,884명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발생 현황

39명



(21.6.14 기준)

e학습터 및 온라인클래스 접속자 현황

e학습터 **664,000**명

온라인클래스 **675,000**명



(20.4.16 9시 기준)

'스마트 기기 대여제도'를 통해 기기를 대여 받은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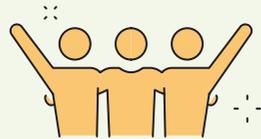
28.3만명



(2020년 1학기)

온라인 개학 지원을 위한 교사중심 공동체

1만 교사 커뮤니티



(20.4.3 기준)
커뮤니티 회원수: 8,946명, 89.5% 가입

원격수업을 위해 교사가 업로드한 콘텐츠 수

12,486만개



(20년 4월 ~ 12월)

인터넷 통신비 (월 19,250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수

연간 **17.4**만명



원격수업 만족도

학생 **81%**

학부모 **56.7%**



(조사시기 20.10.27~11.2)

원격수업 효과성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 **65.4%**

· 원격수업 지속필요

학생 **56.7%**

교사 **69.2%**

(조사시기 20.10.27~11.2)

2020년 코로나19 대응 교육 인프라 지원을 위한 추경 예산

295,958백만원



긴급돌봄

참여 학생 수

187,3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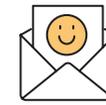


(20.6.22 기준)

장애학생 긴급돌봄

학부모의 '만족' 응답 비율

93.3%



(20.10.26~11.2, 학부모 4,621명 참여)

초등학교 269만명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20년 10월, 1회)

20만원



(중학교 15만원, 132만명)

전국 530만 학생 가정에 공급한 농산물 꾸러미

45,000톤



(3,750억원)

2020년 수능 응시 학생수

421,034명



(재학생 및 졸업생 포함)

수능시험에 응시한 확진자 수

41명



(수능시험일 20.12.3)

일일 자가진단 사이트 참여 인원(앱)

672.9만명



(20.11.23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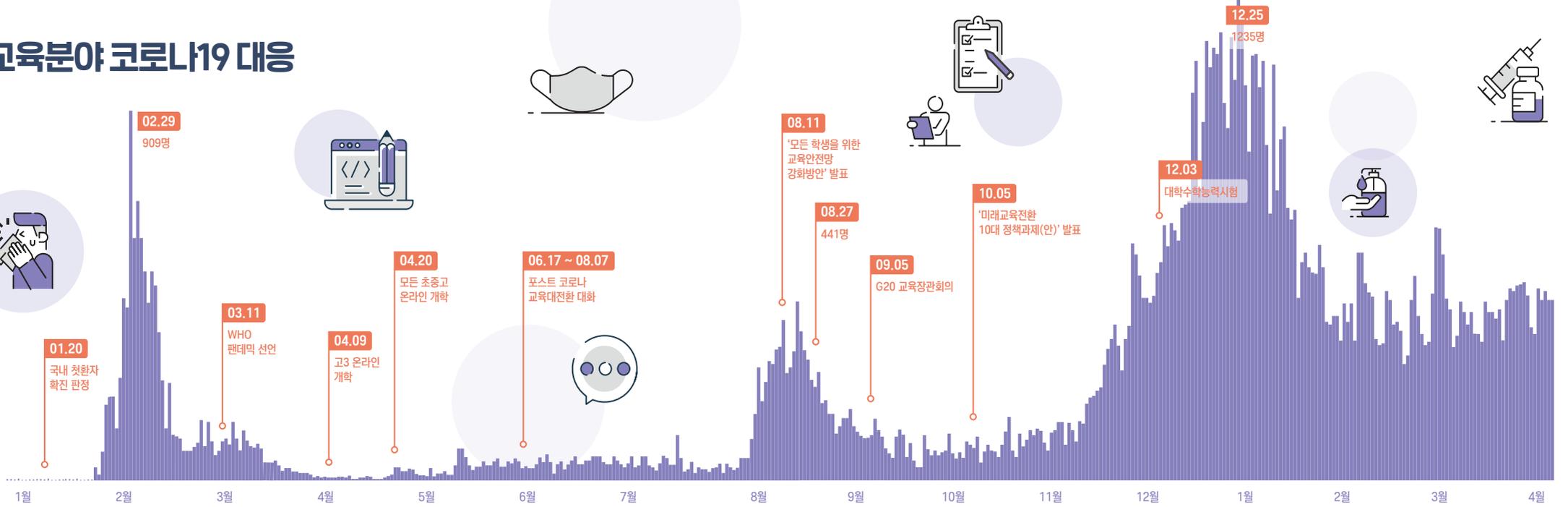
교육부 코로나19 상황 및 일일점검 회의 횟수

259회



(20.1.29~21.6.11)

한눈에 보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2020년 1분기 2020년 2분기 2020년 3분기 2020년 4분기

대응 체계

학사운영

-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 설치(2.21)
- 유초중고 1차 개학연기(2.23)
- 코로나19 대응 대학 및 유학생 지원팀 신설(3.1)
- 학사운영 및 지원방안 발표(3.2)
-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4.7)
- 코로나19 관련 학생 상담·심리 지원(4.19)
- 유·초중고·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 발표(5.4)
- 고3 등교 개학(5.20)
- 유·초1~2, 중3, 고2 등교 개학(5.27)



- 코로나19 대응 학교상황총괄과 확대 개편(7.1)
- 코로나19 대응 원격교육 인프라구축과 신설(7.1)
-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 발표(8.11)
- 수도권 원격수업 전환(8.26~9.20)
-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이후 학사운영 방안 발표(10.11)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에 따른 등교지침 마련(11.1) 및 시행(11.22)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 발표(12.6)

학교방역

유학생관리

- 유학생 출입국 정보 공유 체계 마련(1.31~)
- 코로나19 범정부 유학생지원단 운영(2.2)
-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 마련(2.16)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지침 배포(3.24)
- 유·초중등 방역준비 실태점검(4.12)
- 대학 코로나19 감염 예방관리지침 안내(4.23)
- 해외입국 유학생 방역관리 강화 확대 시행(4.1)
- 등교수업 전환 학교방역 세부지침 발표(5.7)
- 학생 자기건강진단 일일점검 시행(5.18)



- 2020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관련 서울 간담회(7.16)
- 대학에 해외입국 외국인 치료 관련 안내(8.14)
- 수도권 지역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강화 관련 관계부처 회의(8.20)
- 탄력적 학사운영과 강화된 방역조치를 위해 학교방역인력 추가 배치(10.11)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 제3판 안내(12.11)

돌봄지원

온라인개학

- 긴급돌봄 수요조사 1~3차 실시(2.24~3.9)
- 긴급돌봄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3.9~)
- 개학 지연 대비 온라인 학습콘텐츠 검토(2.20)
- 온라인 학습통합 지원사이트 '학교온(On)' 개통(3.10)
- 1만 교사 커뮤니티 임명(4.6)
- 고3 온라인 개학(4.9)
- 초4~6, 중1~2, 고1~2 온라인 개학(4.16)
- 모든 초중고 온라인 개학(4.20)
- 학생 가정 농산물꾸러미 사업 시행(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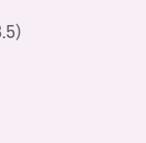
- 초등학교 등교수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6.29)
-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방안 마련 및 현장 점검(8.27)
-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2학기 학사운영 관련 브리핑(8.25)



현장소통

국제협력

- 코로나19 대응 대학차장협의회(1.29)
- 코로나19 대응 1차 대학 현장지원(2.26~3.5)
- 한중 교육부 각국 유학생 보호 합의(2.28)
- EBS 학습관리 시스템 현장 점검(4.17, 20, 22)
- 한-중 코로나19 대응 및 교육협력 강화 논의(5.11)
- G20 특별 교육장관 화상회의(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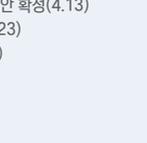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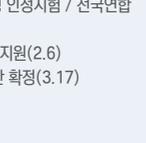
- 수도권 학부모 원격 간담회(8.31)
- G20 교육장관회의(9.5)
- 특수학교 등교수업 현장방문 및 학부모·교직원 간담회(10.19)
- 실시간 온·오프라인 한국유학박람회 개최(10.20)
- 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원격회담 개최(11.17)



각종시험

예산지원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 / 전국연합 학력평가 연기
- 코로나19 예방대책 제1차 특별교부금 긴급지원(2.6)
- 코로나19 대응 위한 2020년 추가 경정예산 확정(3.17)
- 2021학년도 수능 2주 연기 및 대입 일정 변경안 확정(4.13)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4.23)
-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책 추진(4.24)
- 재난안전관리 제5차 특별교부금 지원(6.30)



-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1.85%로 추가 인하(7.8)
-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 발표(7.31)
-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관리 방향 발표(8.4)
- 수능 특별방역기간 운영(2주)
- 대학수학능력시험(12.3)



미래교육

-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회의(4.23, 5.1, 5.8, 6.19)
- 포스트코로나 교육대전환 대화(6.17~8.7)
- 권역별 포스트 코로나 교육대전환을 위한 대화(7.15~8.11)
-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 발표(9.9)
-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출연 혁신방안」 발표(9.23)
- '미래교육전환 10대 정책과제(시안)' 발표(10.5)
- 미래교육10대 정책 학부모와의 대화(11.18)
-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발표(11.20)
- 미래교육10대 정책 학생과의 대화(12.15) 및 교원과의 대화(12.16)



02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대응 체계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각종 현안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다. 교육부 내부에 장관관이 총괄하는 대응 조직을 구성하였고, 관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대학 등 교육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과 소통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업체를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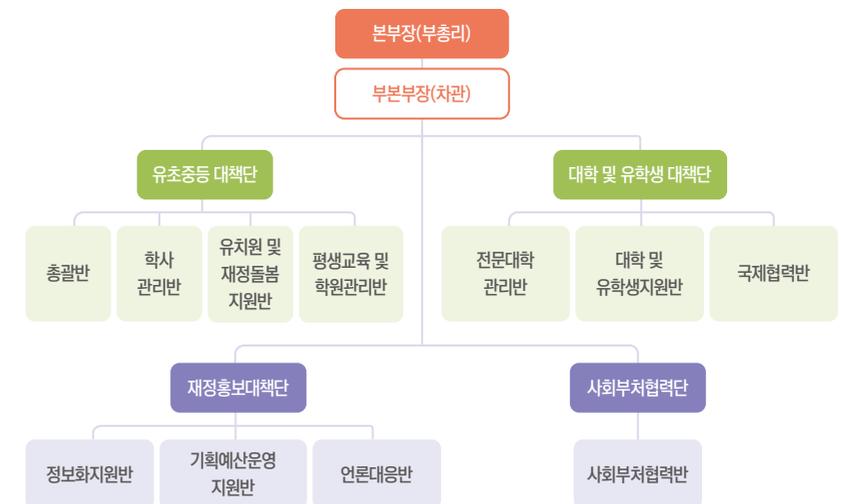


교육부 대응 체계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산 초기, 교육부는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신설하여 대응하였다.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가 격상됨에 따라 점차 대응 조직을 확대·재편하였고, 2월 말부터 부총리를 본부장으로 32개 부서가 참여하는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를 운영하였다.

대책본부는 ‘유초중등 대책단’, ‘대학 및 유학생 대책단’, ‘재정홍보대책단’, ‘사회부처협력단’ 등 4개 단으로 구성되었다. ‘유초중등 대책단’은 학교 방역,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지역 교육청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을 지원하였고, ‘대학 및 유학생 대책단’은 대학 방역,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 입국 외국인 유학생 현황 관리, 학사 관리 등을 종합 관리 및 지원하였다. ‘사회부처협력단’은 사회부처와의 협력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교육부장관이 사회부총리 역할을 겸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7월 1일, 코로나19 대학긴급대응팀을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로 확대·개편하였고 코로나19대응 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를 신설하였다.

코로나19 교육부 대책본부 조직도



코로나19 대응 전담부서

- 코로나19대응 학교상황총괄과
- 교육분야 전반의 코로나19 상황에 총괄 대응
- 코로나19대응 원격교육인프라구축과
- 원격수업 시행에 따른 학습관리시스템(LMS)을 안정적으로 운영

시도교육청 협력 체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세 차례의 개학 연기를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현안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의체인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추진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원단체가 참여하였다. 2020년 5월부터는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결정되었고, '신학기 개학준비 추진단'은 '등교수업 준비 추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각종 논의를 진행하였다.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 조직도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위한 회의는 개학 준비를 위해 총 37회에 걸쳐 개최되었다. 교육부는 주로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안내하고, 시도교육청은 각 지역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별 실정에 맞는 정책 내용을 논의하였다.



일상회복추진단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 조성 및 내실 있는 학사 운영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을 위해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하였다. 일상회복추진단에서는 시도부교육감 및 교육국장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격주 개최하고 있다. 6개 분야 중점 점검과제 관련 핵심지표 점검·관리 및 교육부에서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한 현안과제를 논의하고 현장의견 수렴 및 시도교육청 주요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학교일상회복지원단 구성·운영



※ 교육부-질병관리청 등 방역당국, 시도교육청-지역 보건당국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학사운영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속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맞게 적용해나갔다. 1차 유행기에는 개학 연기 및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면서 등교수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며 이후 2차, 3차 유행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등교·원격 수업을 적절히 병행하며 유연하게 대응한 학사 운영을 시행해 나갔다.

개학 전 신속한 학사조정 실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학 전 신속하게 2020학년도 학사를 조정하였다. 학생건강 및 안전을 위해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신학기 개학 연기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른 학사운영 방안을 수립하였다.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전국 대학의 개강 연기를 권고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로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였다. 대학 졸업식 신입생 OT 등 집단행사 연기 또는 철회를 권고하였고 대학들은 전면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였다.

등교수업일지

2월	3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총484개 학교개학연기 휴업결정
	23일	1차 개학연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개학 일주일 연기 (개학일: 3.2→3.9) 발표. 전국 단위 첫 학교 휴업령
3월	2일	2차 개학연기: 전국 유·초중고 개학 2주 추가연기(개학일: 3.23)
	17일	3차 개학연기: 개학일 2주 추가 연기(개학일: 4.6)
	31일	4차 개학연기: 온라인 개학발표(4.9부터 중3, 고3순차)
4월	9일	1차 온라인 개학: 중3, 고3, 사상 첫 온라인 개학
	16일	2차 온라인 개학: 초 4-6, 중1-2, 고1-2
	20일	3차 온라인 개학: 초1-3, 초중고 개학 연기 49일만에 공식종료
5월	4일	고3부터 순차적 등교 개학 결정 및 발표
	11일	등교 개학 일주일씩 연기 결정
	20일	1차 등교: 고3(※ 개학 연기 80일만에 첫 등교)
6월	27일	2차 등교: 유치원, 초1-2, 중3, 고2
	3일	3차 등교: 초3-4, 중2, 고1
6월	8일	4차등교: 초5-6, 중1 ※ 99일 만에 모든 학생 등교 마무리



온라인 개학에 대응한 학사 운영 지원

사상 최초의 온라인 개학에 대응한 다각적인 학사운영을 지원하였다. 온라인 개학은 고3, 중3을 시작으로 학년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학 시기를 다르게 정하여 현장에서 준비 및 적응 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이 원격수업에 대하여 지켜야 할 실천 수칙을 온라인 개학에 맞추어 제시하였다.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지역학교의 여건과 교사의 전문적 판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부 운영지침과 원격수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2020학년도 1학기 단계적 온라인 개학

※ 4.6. 이후 각 학년별 휴업 기간은 법정 수업일수(수업시수)에서 감축 허용

학년	4.6~8	4.9~10	4.13~15	4.16~17	4.20~
고	3	휴업(3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9~)	
	1,2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중	3	휴업(3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9~)	
	1,2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초	4-6	휴업(7일)		적응기간	온라인 개학(4.16~)
	1-3	휴업(9일)			온라인 개학(4.20~)

원격수업의 유형별 운영 형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수업	과제 수행 중심수업	기타
			
실시간 원격교육 기본(플랫폼)을 토대로 교사-학생 간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 토론 및 소통 등 즉각적 피드백	(강의형) 학생은 지정된 녹화 강의나 학습 콘텐츠로 학습하고, 교사는 학습 진행도 확인 및 피드백(강의+활동형) 학습 콘텐츠 시청후 댓글, 답글 등으로 원격 토론	교사는 교과별 성취 기준에 따라 학생이 자기주도적 학습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과제 제시 및 피드백	교육청, 학교 여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등교수업·원격 수업 병행에 따른 현장지원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는 등교수업·원격수업 병행에 따라 신속하게 현장 지원을 하였다. 등교수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및 유치원 개학 이후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였고, 학생들의 평가 부담이 완화될 수 있게 수행평가 성적 반영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원격수업 중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하여 평가 및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등교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등교 시 적용 가능한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 및 구체적인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을 공유하여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등교수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등교수업 지원의 달을 지정하여 현장을 지원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등교·원격수업의 방식과 학교 내 밀집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여 학교에서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 조치(2020.7.31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원격수업 또는 휴업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내 2/3 밀집 유지 권장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유지	전국단위 조정(원칙), 상황에 따라 권역 또는 지역별 차등 적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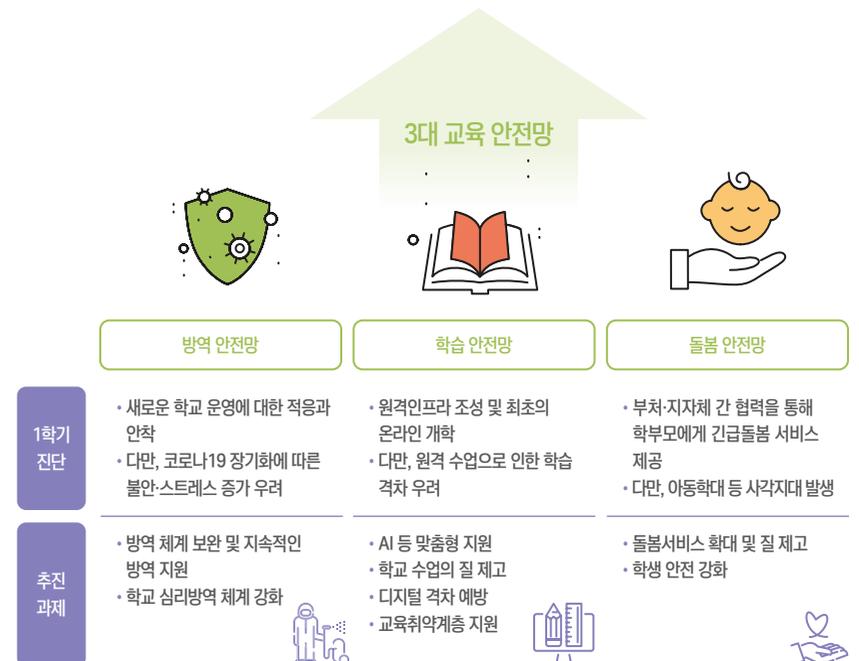
단계별 등교원칙(2020.11.7~2021.6.1)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지역적 유행 개시	지역유행 급속 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전국적 유행 본격화	전국적 대유행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권고	밀집도 2/3원칙	밀집도 1/3원칙 (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으로 는 최대 2/3운영가능	밀집도 1/3 준수	원격수업 전환

그리고 1학기 학교교육 운영 성과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2학기의 학사운영을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촘촘히 보완하고 심리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 안전망, 학습격차 해소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학습 안전망, 돌봄서비스를 확대하면서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돌봄 안전망을 마련하였다.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 안전망 강화방안

[목표] 학생중심의 방역·학습·돌봄 안전망 강화



온라인 개학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등교 개학이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였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생이 참여 가능한 공공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를 확보하였다. 특히 교원들이 양질의 원격수업 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1만 커뮤니티', '지식센터' 등 자발적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였다.



원격수업 기반 마련

온라인 개학 실시 이전, 전국 초중고등학교 약 534만 명의 학생들이 참여 가능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 전, e학습터·EBS온라인클래스 시스템 증설 및 점검을 거쳐 일일 각 300만 명 동시 이용 가능한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원격수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민간 합동 원격수업 점검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기관별 실시간 현장 기술 상황실을 운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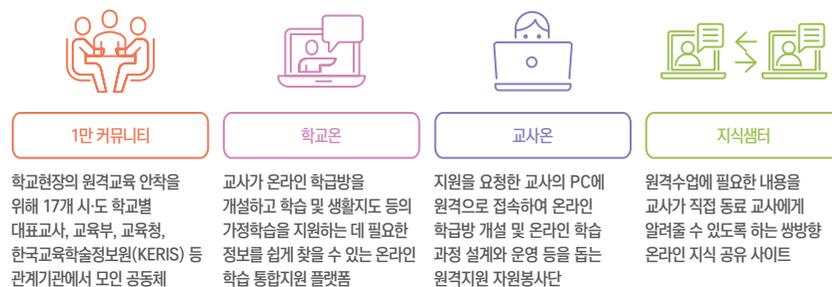
공공학습관리시스템 구축



교사 상호간 협력 환경 조성

'1만 커뮤니티', '학교온', '지식센터' 등을 통해 교사들이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나누면서 실시간 소통창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였다. 교사들은 학교를 넘어 다양한 교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 원격수업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원격수업 역량을 개발하였다.

교사 원격수업 지원 커뮤니티



초중등학교 다양한 원격수업 콘텐츠 확보

온라인 개학으로 전면 원격수업 시행에 따라 교사들의 원활한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콘텐츠 확보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 콘텐츠로는 e학습터의 5.5천종, EBS의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 약15,000편을 포함한 4.3만종, 국·검정 교과서 E-Book 497종과 디지털 교과서 134종을 제공하였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에서 개발된 방송중 28종, 방송고 41종의 콘텐츠를 공유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수요층을 위해 맞춤형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였다. 장애학생의 원격수업 지원을 위해 점역 파일 제작 자막 지원, 다문화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원격수업 지원 콘텐츠 제작·보급, 직업계고 전문교과 수업 등에 활용할 온라인 콘텐츠 확보 등 다각도에서 콘텐츠 제작 및 확보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더불어 보다 다양한 콘텐츠 지원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듣는 교과서' 약 3,000편과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306편 등 민간 콘텐츠 역시 무료로 탑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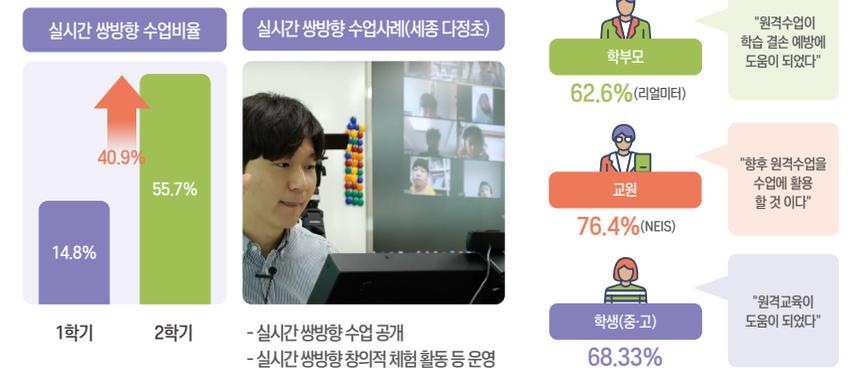
원격수업을 위한 교과 콘텐츠 제공현황

구분	교과	채널
초 1-2	국어, 수학	EBS Plus2, EBS 2TV
초 1-6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e학습터 + EBS 온라인클래스
중 1-3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e학습터 + EBS 온라인클래스(EBS중학, EBS프리미엄)
	교과군별 디지털 학습 콘텐츠 28종	방송통신중학교 교과 콘텐츠(e학습터 + EBS 온라인클래스)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EBSi 고교강의(고1시리즈, 고2시리즈), EBS수능특강, EBS 온라인클래스
	교과군별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 41종	방송통신고등학교 교과 콘텐츠(e학습터 + EBS 온라인클래스)

원격교육을 통한 교육 성과

온라인 교육을 위해 필요한 교육 콘텐츠 제공, 기술적 기반 구축 등이 안정화되고, 교사, 학생 및 학부모의 원격수업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온라인 교육도 안정화되기 시작했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강화방안」(8.11) 및 「원격수업 질 제고 및 교육안전망 안착 지원 방안」(9.15)을 발표하여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초·중등학교에서는 교과 수업 시 활용하는 원격수업 형태 중 실시간 쌍방향수업 비율이 1학기 대비 2학기에 대폭 증가(1학기 14.8%→2학기 55.7%)하였으며,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활용 비율 역시 증가(1학기 20.3%→2학기 25.3%)하였다.

2020학년도 2학기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을 위한 원격수업 질 제고 성과



학교 방역 시스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새로운 학교 방역 모델을 도출하였다. 유행 단계에 따라 방역 지침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관별 방역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학교 내에서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 물품이 차질 없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학교 밖에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하였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학교가 준수해야 할 방역의 기본방향, 개학 전·후 준비 및 세부실행 사항, 학교 내 의심증상자·확진자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포함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 방역 가이드라인)」 지침을 배포하여 개학 준비를 위한 방역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 이용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3.24, 교육부)

개학 전 학교의 준비사항	
	소독 강화 개학 전 전문업체에 위탁 학교 전체에 대한 특별 소독완료
	관리 체계 '코로나-19 담당자' 지정,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의심 증상자 사전파악 및 등교중지 안내 ※ 교직원의 내용 숙지를 위하여 학교 단위로 교직원 대상 사전교육(비대면) 실시
	위생 환경 의심 증상자 격리 장소(일시적 관찰실) 준비, 등교시간 혼잡 최소화(분산) 방안 마련·안내, 위생방역물품(비누·손소독제·체온계·휴지 등) 비치 등 ※ 발열검사를 위한 학교 출입문 조정 등 등선 확정안내, 열화상카메라 조기 설치 등
	마스크 비축 개학 후 확진·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용 마스크 필요량 비축 지원을 통하여 확산 차단
개학 이후 학교의 주요 조치사항	
	발열 검사 등교 전 가정에서 건강 상태 확인 후 의심증상 시 등교중지 및 학교연락, 등교 시 수업 중 발열 검사 후 유증상자 귀가 ※ 1주일 전부터 학생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학교에 연락하는 일일점검 시스템 자동 기저질환(만성질환, 당뇨 등)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준수 교육, 유증상자 대기를 위한 별도의 공간 마련 및 보호 조치
	등교·출근 중지 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 - 해외 여행력 및 국내에서 집단발생 연관 시 자택에서 2주간 경과 관찰
	교육 및 실천지도 다수 공간에 개인위생 수칙 게시, 교내 방송을 통한 수시 안내, 손씻기·기침예절·마스크 착용 실천 지도
	확진자 발생 시 보건당국과 협의하여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학급, 학년 또는 학교 전체에 대한 14일간 등교 중지 (학교시설은 소독 후 이용 가능)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시설 이용 제한 조치

발생규모	이동경로	시설이용제한 범위(예시)
1명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해당 교실 또는 교무실 및 이동경로 중심 이용제한
	이동 경로 불명확	- 확진자의 이용 예상 구역(교실, 교무실, 화장실, 복도, 식당, 승강기 등)과 일반인의 이용·접촉 잦은 구역 중심으로 이용제한
복수 발생 (방문포함)	이동 경로 명확	- 같은 층에서 복수의 확진자 발생 시, 해당 층 전부 이용제한 ※ 층간 이동통제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층 중점 방역 - 다수의 층에서 복수의 확진 환자 발생 시, 해당 건물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검토
	이동 경로 불명확	- 학교 전체 일시적 이용제한

학교장은 보건당국의 안내에 따라 시설의 일시적 이용제한 및 출입금지, 시설 내 이동제한 등 조치 시행



대학 방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대학에 안내하였다.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집합수업 지양 및 재택수업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대학 인근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대학-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였으며,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모니터링을 지속하였다. 또한 대학 내 집단활동을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관리와 대학 시설물 외부인 출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학원 방역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학원, 교습소 대상 코로나19 예방 관리 강화가 이루어졌다.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원은 휴원을 권고하면서 자체적인 방역활동 강화를 요청하고 추적·관리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발맞춰 학교 방역과 마찬가지로 학원 내 감염 예방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중수본 발표, 5.28)

사업주·종사자	이용자(신설)
- 출입자 명부 관리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 출입명부 작성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 방역관리자 지정	
- 수업 전·후 실내소독(대장 작성)	
- 강의실 내 수강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방역 물품 확보

교육부는 신속하게 학교 방역 비축 물품 및 추가 필요 물품 현황 등을 파악하였고 예산집행을 통해 방역 물품을 확보하였다. 교육기관에 필요한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긴급돌봄, 유학생, 신학기 유치원·초중고 학생 등 우선순위에 따라 확보하였다. 또한 등교 시 체온을 측정할 때, 학생들이 몰려 밀집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열화상카메라 설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등교수업 준비를 위한 방역 준비 상황('20.4.22 기준)



2020년 2학기 방역물품 지원 현황

구분	마스크	손소독제	알코올티슈	손세정제	계
하반기 지원예산 (계획량 대비 지원수준)	13,644백만원 (100%)	1,051백만원 (25%)	12,480백만원 (25%)	1,078백만원 (25%)	28,253백만원
2학기 방역물품 비축 모습 (상반기 비축+ 하반기 지원)	37,569,568 (1인당 6.1개)	1,782,042 (교실당 6.4개)	4,180,216 (교실당 15.1개)	742,913 (교실당 2.6개)	-

심리방역 강화

자가격리자·확진자는 물론 일반 학생이나 교직원의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심리방역'에 노력을 기울였다. 정신과 전문의 60여 명으로 구성된 심리지원단, 24시간 모바일 상담 시스템 등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하였다. 확진자 발생 학교에는 정신과 전문의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등 실제적인 심리지원을 하였다.

학교심리 방역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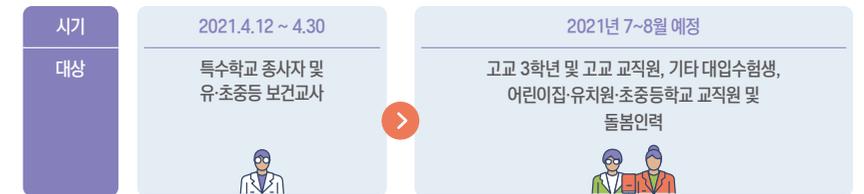
코로나19 예방접종

우리나라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하였다. 예방접종은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진행 위험, 의료 및 방역체계 유지, 코로나19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부터 시행되었다. 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은 2021년 2분기부터 시작되었다.

접종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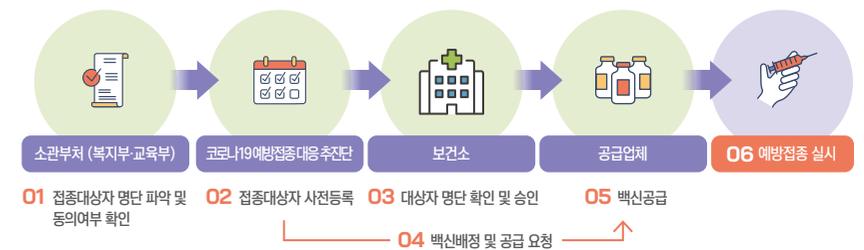
교육분야에서는 특수교육·보육 종사자와 보건교사가 우선적인 예방접종 대상으로 결정되어 2021년 4월부터 접종을 시작하였다. 장애학생은 대면수업이 적합하지만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고, 보건교사는 학교 내 코로나19 감염 의심환자와 밀접 접촉하므로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그다음으로 7~8월에는 고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어린이집·유치원·초중등학교 교직원 및 돌봄인력, 기타 대입수험생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예정이다.

교육기관 종사자 백신접종 계획



접종 방법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에 접종 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고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보건소는 명단을 확인해 물량·일정 등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개인 또는 학교 단위로 연락하여 예약 일정을 조율하였다.



접종시간 보장 등

교육부는 예방접종을 받는 교직원이 접종에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다음날 발열이나 통증 등 이상반응이 있으면 진단서 없이 '병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무처리 사항을 안내하였다.



돌봄 지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신학기 등교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수요가 발생하면서 수요조사가 이루어졌고,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긴급돌봄은 행·재정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긴급돌봄 현장에서도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지원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다. 아울러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토대로 긴급돌봄을 제공하여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현장밀착형 긴급돌봄 대응과 지원

코로나19 확산은 등교 개학 연기로 이어졌으며, 개학 연기 후속 조치로 긴급돌봄 제공 추진을 발표하였다. 기본원칙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이 담보되는 환경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감염증 특성을 고려하여 최소 인원으로 분산 배치하고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 대응체계를 구성하여 협력하였다. 철저한 방역 하에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하는 모든 학생에게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중식 제공 및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등 학부모 요구에 대응하였다.

| 정부의 긴급돌봄 지원 현황

<p>"안전하고 촘촘한 긴급 돌봄!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활동보도자료, '20.2.28)</p>	<p>개학연기 후속조치 일환으로 긴급돌봄 제공 - 기간: 3.2~6(1주일간) - 대상: 초등학생 48,656명(4,150개교)(1.8%) 유아 71,353명(5,612개원)(11.6%) - 운영시간: 9시~17시(지역여건 및 학부모 수요 고려) - 학습구성: 10명 내외 권장 - 담당인력: 모든 교직원이 긴급돌봄 비상대응체계 구성 협력</p>	
<p>"긴급돌봄 3차 수요 조사 결과" (교육부 보도자료, '20.3.12)</p>	<p>학교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안전한 긴급돌봄 제공 - 기간: 3.9~20(10일간) - 대상: 초등학생 60,490명(4,634개교)(2.2%) 유아 87,701명(6,516개원)(13.4%) - 운영시간: 9시~19시(지역 여건 및 수요 등 고려) - [긴급돌봄 운영 관리 지침] 마련 배포(3.6) - 긴급 돌봄지원센터(소통창구)설치 운영(3.11~)</p>	
<p>"유·초·중고·특수학교 개학 2주간 추가 연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3.17)</p>	<p>긴급돌봄 등 행·재정 지원 - 긴급돌봄 리플릿 제작·배포 - 학교은 누리집에 긴급돌봄 탭 신설 및 콘텐츠 공유·활용</p>	
<p>"교육부, 학교 안팎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교육부 보도자료, '20.3.24)</p>	<p>[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 안내] 지침 마련·배포 - 개학 전 학교 준비사항: 소독 강화, 관리체계, 위생환경, 마스크 비축 등 - 개학이후 학교의 주요 조치사항: 발열 검사, 등교중지, 교육 및 실천지도, 위생환경, 소독강화, 의심환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p>	
<p>"초등학교 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 돌봄 운영 계획"안내 (교육부 방과후 돌봄 정책과, '20.5.24)</p>	<p>온라인 개학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방안 안내 - 원격 수업 지원 및 돌봄 운영 - 긴급돌봄 인력운영: 방과후 학교 강사, 원격학습도우미, 돌봄전담사, 보조인력 등</p>	
<p>"5월27일 1단계 등교수업 개시에 앞서 학교 내 밀집도 최소화 조치 및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방안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5.24)</p>	<p>생활 속 거리두기 내에서 학습과 방역 조화 원격·등교수업 병행 대비 돌봄 공백 최소화</p>	
<p>"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교육부 보도자료, '20.8.27)</p>	<p>수도권 지역은 전면 원격수업 전환에 따라 돌봄교실 내 밀집도 고려 최소 인원으로 분산 배치 (실당 10명 내외 운영) 현장의견 및 학부모 요구사항 반영 위해 '돌봄 지원센터' 설치·운영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학교급식(중식) 지속 제공 돌봄예산 상시 점검 및 대응</p>	

학사운영과 연계한 긴급돌봄 운영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특히 휴업 시 유치원 및 초등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여 긴급돌봄을 실시하고 가족돌봄휴가제 적극 활용과 유치원 유아학비 등에 대해 수요자에게 안내하였다. 그리고 현장에는 긴급돌봄에 대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긴급돌봄 운영관리지침을 안내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계획을 세워 협력적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복지부는 어린이집 관련, 고용부는 가족돌봄 휴가 관련 대책을 세웠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긴급돌봄 관련 사안을 협력하여 빈틈없이 긴급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긴급돌봄 운영 사항



구분	긴급돌봄(개학 연기 시)	긴급돌봄(온라인 개학 시)	등교수업 후 돌봄
적용시기	개학연기(휴업)로 인한 돌봄운영 (3.2~4.15)	초등(온라인 개학 시)돌봄운영 (4.16~5.26)	등교 개학 시 돌봄운영 (5.27~현재)
대상	유치원 유아, 1~6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유치원 유아, 1~6학년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 ※ 저학년 맞벌이 우선	입급 대상 학생 ※ 맞벌이/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학생
운영시간	오전 9시 ~ 오후 7시	오전 9시 ~ 오후 7시	오전 9시 ~ 오후 7시 ※ 유치원은 시도별 방과후 과정 정상 운영
학급규모	급당 10명 내외	급당 10명 내외	밀집도 고려하여 운영
중식	도시락 치장 및 중식 제공	중식제공(도시락 매식 등)	학교급식 제공
프로그램 및 수업	EBS, 학교온 등 온라인 콘텐츠활용	원격수업, EBS, 학교온 등 온라인 콘텐츠 활용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인력활용	모든 교직원 참여	원격수업 지원은 원격학습도우미 활용 (방과후학교 강사 등), 돌봄은 전담인력이 담당, 필요시 보조인력 담당	원격학습도우미 활용 (원격수업 지원, 방역활동 등), 돌봄은 전담인력이 담당, 필요시 보조인력활용
코로나19 안전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관리
준용 매뉴얼	긴급돌봄 운영 관리지침	긴급돌봄 운영 관리지침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 및 긴급돌봄 운영 관리지침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학생 건강증진, 가정 내 식사에 대한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지역별 학교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전국 초·중·고생 대상 가정으로 농산물 꾸러미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시행 지침을 수립하였다. 이에 공급 예정 농산물의 품질 및 위생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점검하고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진하였다. 지역 상황에 따라서 실제 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또는 개별 품목 구입이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였다.

각종 시험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응시자들에게 접수 취소를 권고하거나 시험 취소, 연기 등의 조치를 취했고, 시험을 시행하게 되는 경우 강력한 방역 조치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시험방역관리 지침이 마련된 이후에는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험 시행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통해 방역 강화 조치에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독려하고 시험 전·후 철저한 방역관리를 실시하였다.

각종 시험별 상황에 맞는 신속한 조치 실시

코로나19 상황 초기단계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독학취위제, 검정고시, 한국어능력시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임용시험 등 각종 시험별 상황에 따라 응시자들에게 접수 취소를 권고하거나 시험 취소, 연기 등의 조치를 주로 취했다. 시험을 연기한 경우는 응시 인원 최소화, 분산 등 조치를 취하면서 코로나19가 안정적인 단계에서 시험을 시행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시 일정을 추가 연기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방안' 마련하였고 이후에는 시험 시 코로나19 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성, 감염예방 교육·홍보 등 시험 단계별(사전 준비, 당일 및 종료 후, 면접) 코로나19 대응 조치사항 등의 시험방역관리 원칙으로 보다 체계적인 시험 시행이 이루어졌다. 모든 시험에서 시험장 입실 전 체온 측정, 거리 유지와 혼잡도 최소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동일하게 적용하였지만,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응시 가능 여부나 시험장 당 응시 인원 수, 칸막이 설치 등은 시험별 특수성, 감염병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였다.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 발표

대학수학능력시험은 2020년 기준으로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쳐 421,034명이 응시한 최대 규모 시험이다. 교육부는 6월부터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교육과정평가원, 시도교육청, 감염병 전문가 등과의 수능 방역 TF 운영을 통해 안전한 수능시험 실시를 위한 관리 방향 마련을 추진하였다. 이를 통해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역관리체계 구축'과 '방역관리범위 내에서 확진자도 포함하여 수험생의 응시기회를 최대한 지원'이라는 기본원칙을 토대로 수능 및 대학별 전형 집합 평가에서 감염 차단 방안, 수험생 응시 기회 지원, 수능 시험실 배치 인원 하향 조정,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운영, 대학별 전형 운영 관련 자체 대면 요소 진단 및 방역관리대책 수립 권고 등의 세부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2021학년도 대입 관리방향'을 마련하여 8월 4일에 발표하였다.

수능관리 로드맵

구분	8월	9월	10월: 환경조성	11월: 집중관리	12월	
2021학년도	대입 관리 방향 (8.4)	원서 접수 (9.18)	수능 관리 계획 (9.28)	시도별 위험요소 진단 방역지침 (1주) 시험장 확보 (4주) 원활화 대책 (5주)	시도별 이동제한사항관리 수험생 보호 조치 이동제한수험생 시험장 확보 필요시 방역 비상조치 대국민 협조요청	시험 (12.3)
2020학년도		원서접수 (9.6)		원활화 대책 (10.22)	시험 (11.4)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방역관리

교육부는 안전한 수능 시행을 위해 첫째, '일반수험생', '격리수험생', '확진수험생'으로 수험생 유형을 구분하고, 수험생 유형별로 시험장을 별도 마련하는 등 안전한 수험 환경을 조성하였다. 둘째, 수험생 유형에 따른 일반 시험장(일반수험생)과 별도 시험장(격리수험생),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확진수험생) 등 총 1,383개의 시험장을 확보하여 전년 대비 198개의 시험장을 추가 설치하였으며, 시험실 또한 1만여 개를 추가 확보하여 총 3만 1,291개를 설치하였다. 셋째, 시험장 운영 및 방역관리 등을 위해 관리·감독 인력 역시 전년 대비 2만 1천여 명이 증가된 총 12만 708명을 투입하였다.

2021학년도 수능 시험장 및 관리 감독 인력 현황(2020.12.2기준)

구분 (학년도)	일반				격리		확진		관리/감독 인력
	시험장	일반 시험실	유증상 시험실	계	시험장	시험실	병원	병상	
2021	1,241	23,373	7,130	30,503	113	583	29	205	120,708
2020	1,185	21,000	-	21,000	-	-	-	-	98,925
증감	56	2,373	7,130	9,503	113	583	29	205	21,783

12월 3일 수능 시험 당일 시험에 응시한 확진자 41명, 자가격리자 456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와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수능이 종료된 이후 시험장으로 활용된 모든 학교는 12월 6일까지 소독 등 방역조치를 완료하였다. 또한 질병청과 협조하여 12월 17일까지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시험장을 통한 코로나19 추가 감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수능과 관련한 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능시험장 현장점검



문재인 대통령 수능대비 학교 점검

시험단계별 조치사항(일반시험장 기준)

단계	주요사항
사전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관리체계 구성 및 단계별 대응방안(업무분장) 수립 유증상자 별도 시험실 설치 및 운영 계획 수립 시험장 소독 및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 이행
당일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관리 및 유증상자 발생 시 별도시험실 배치 시험장 상황을 고려하여 휴식 시간마다 환기 실시 분인 좌석에서 점심식사, 식사 후 반드시 환기 실시 별도 시험실은 감독관 보호 및 단언지 회수 등 추가 조치
종료 후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시험실과 별도 시험실 수험생 간 퇴실 동선 등 관리 시험장 활용 물품 폐기 처리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코로나19 임상증상 모니터링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에서의 소통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대응 인력, 조직, 체계 간 공유뿐 아니라 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는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하여 교육 분야 주요 조치사항을 일관성 있게 전달하고 현장 방문, 간담회, 온라인 간담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코로나19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

범정부적 대응 관련 메시지 일관성 유지 노력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 단계로 격상된 이후 대책반을 확대 개편하여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으며, 매일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유행 대응 상황을 점검하였다. 그리고 중대본 및 중수본 차원의 대응지침을 공유하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맞게 교육기관에서의 감염병 예방 교육, 교내 방역 강화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등교 결정, 등교 중지 등 학교 운영 상황을 결정할 때에도 중수본 및 중대본의 조치사항을 고려하였다. 교육부 관할 교육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응지침을 마련하여 교육기관과 공유하였다. 이처럼 중앙부처 간 일관된 메시지를 국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08.26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국 교육장회의



09.1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간담회



11.03
코로나19 관련 학교방역 전문가 자문회의



11.30
부총리-소방청장 간담회

현장 교육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의견 수렴

교육부 대책반 상황점검회의, 교육기관 현장 방문을 통한 점검, 시도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정부적 대응 조치에 대한 조치사항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해 왔다. 그리고 민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의 학원 휴원 적극 동참, 학원 휴원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언론과 미디어를 활용한 교육분야 주요 조치사항 대국민 소통

코로나19 유행 대응 과정에서 학사일정과 관련한 사항 및 유학생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치, 등교 연기와 시기, 등교수업 지침과 지원 관련 사항, 아동 돌봄에 관한 사항, 수능 관련 사항 등 주요한 조치가 진행될 때마다 언론 브리핑을 실시하여 국민들과 공유하였다. 언론 브리핑 외에도 언론에 출연하여 교육부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언론 홍보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개학이 연기되자 다양한 언론 프로그램에 부총리 및 차관이 직접 출연하여 개학연기에 따른 학사운영 방침 설명, 학원 휴원 권고 및 학원 지원 방안·방역지원책, 방학 중 비근로 교육 공무원 대책, 교육비 환불 요구 관련 입장 등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주요 조치사항들을 공유하고 홍보하였다.



03.31
신학기 온라인 개학 관련 브리핑



11.26
2021 수능 원활화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발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현장과의 소통 지속 노력

코로나19 유행이 장기화되며 교육 현장에서는 등교 여부 등 학사 일정과 관련한 이슈 외에도 대면 수업 진행 여부, 원격수업 진행 등 교육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슈들도 상당수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 온라인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과 소통하였다. 그리고 원격수업에 대한 애로사항, 향후 학사 일정 및 교육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06.10
학교방역 현장 대표교원 원격 간담회



08.31
수도권 지역 학부모 대표 간담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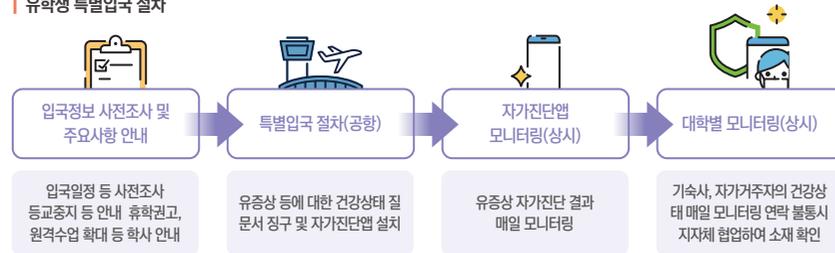
법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 발생 직후, 정부는 중국 유학생 및 중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시작으로 입국 유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 외국인 유학생 대상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고 중국 교육부와 자국 유학생 출국 제한 권고 합의를 도출하는 등 국내외에 걸쳐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대학-지자체 협력을 바탕으로 입국 단계별로 유학생을 철저히 관리하였다.

해외 입국 유학생 체계적 보호 및 관리

교육부는 유학생 입국에 따른 국내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국 단계부터 유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였다. 이를 위해 유학생 출입국 관련 범부처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하여 유학생의 출입국 정보를 해당 대학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후 대학이 입국 유학생을 모니터링하여 코로나19 증상 발현 등 특이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건당국에 신고하고 교육부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입국 유학생 관리를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였다.

유학생 특별입국 절차



코로나19 상황 초기인 2월 중순부터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예정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입국 전 사전 관리 철저, 입국 시 검역 강화 및 입국 사실 보고, 입국 후 2주간 등교중지 등 단계별로 보호·관리방안이 마련되었다. 3월 중순부터는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입국단계별 원격수업 확대 등을 포함한 입국 정보 사전 조사 및 주요사항 안내, 특별입국 절차를 통한 검역 강화, 등교 중지(14일) 및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 유학생 보호·관리 조치를 전 세계 국가들로 확대 적용하였다. 아울러 4월 1일부터는 전 세계 국가 대상으로 입국 후 14일 간 자가격리가 실시되면서 자가격리 위반 시 제재 조치를 안내하는 등 개별 대학에 유학생 지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추진 경과

중국 유학생 보호, 관리(2.16~)	전세계 유학생 보호, 관리 (3.19~)	전세계 유학생 보호, 관리, 자가격리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 - 한중 상호 유학생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 - 인천공항 내 안내창구 운영 - 공항-자가 이동수단 제공 -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등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유학생 보호,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력강화 - 무증상자 선제적 진단 검사 실시 -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 등 모니터링 - 유학생 관리 시스템 개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자가격리 위반 시 제재 조치, 전파등 유학생 지도 철저 요청 - 유학생 입국 시기 분산, 지연 - 유학생과 1일 1회 이상 연락 등 건강상태 확인 지속 실시

주: 국가별 '특별 입국절차 대상국가' 지정 일자: 중국(2.4), 홍콩·마카오(1.12), 일본(3.9), 이란·이탈리아(3.12), 네덜란드·독일·스페인·영국·프랑스(3.15), 전 유럽(3.16), 전 세계 국가(3.19)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

교육부 중심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구성된 유학생 지원 체제는 개별 대학과 지자체의 역할을 설정하고 관련 대책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였다. 또한 개별 대학과 지자체는 범정부 방역대책에 따라 협력을 강화하여 각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보호와 관리 조치를 수행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체계



외국인 유학생 관련 협업사항

교육부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총괄	
복지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수본, 유학생 관리 지침 및 대응 관련 제공 · 중국 및 외국 입국 유학생 의심 증상자 신고 관리 · 모바일 자가진단앱 입력 정보 제공 · 연락불가 중국 입국 유학생 소재 파악 요청 협조 · 해외 유학생 입국 관련 부처별 대응상황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학 이후 학교 감염예방 관리강화 지침검토 · 중국 외 국가 입국 유학생 현황 정보제공 ·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무단이탈자 3단계 중첩 관리 지원(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철저) · 유학생 정보시스템 필요 정보제공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입국 유학생 비자(D-2, D-4) 소지자 정보 전달, 출·입국 현황정보 제공 · 유학생 정보시스템 필요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정보 미확인 모니터링 지원 · 해외 입국 유학생 검역관리 강화 관련 사항 협의 · 외국인 유학생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 상황정보 제공 · 유학생 사증 발급 절차 간소화 지원
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지자체 행사 운영지침 교육부 제공 · 지자체 대응 현황 점검 및 건의사항 답변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설치정보 미확인 모니터링 지원 · 행안부 코로나19 자가격리 TF와 자가격리 유학생 관리팀(안전보호팀) 정보 공유 방안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가격리자 안전진단앱 정보(유학생 개인정보) 제공 요청 · GIS 통합상황판을 통한 무단이탈자 3단계 중첩 관리 지원(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철저)
국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월 1일 이후 해외 입국자 수송 계획 발표 · 해외 입국 유학생 증가에 따른 대책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입국자 동선 제한 및 일반시민 접촉 최소화 안내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소재 한국 학교 교직원 및 학생 현황 제출 요청 · 중국 유학(예정) 중인 한국 유학생 휴학 요건 완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체류 취학아동 및 학생의 현지 소재 파악 협조 및 학사관리 지원 등 소통 확대
식약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스크 공적 물량 배정·공급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학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제공 협조



국제협력



코로나19 상황 초기에는 유학생 관리 차원에서 중국과의 협력 관계가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로 다루어졌다.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심화되면서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을 통해 코로나19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여 각국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방법과 교육협력 방안을 모색하려는 맥락에서 국제협력이 이루어졌다.

양자 협력을 통한 선제적 유학생 관리 및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위기관리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교육부는 「코로나19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여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대학별 위기 대응계획을 즉각적으로 수립하였다. 이어 2월 28일 교육부는 중국 교육부와 원격회담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 최우선 보호', '양국 유학생 보호를 위한 상호 간 출입국 자제 권고', '학생들의 불이익 최소화 노력' 등 3가지 사항을 골자로 하는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2월 28일 18시 이후 즉시 적용)에 합의하였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교육부장관과의 원격회담(4.21),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면담(4.27), 주한 중국대사 면담(5.11), 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원격회담(11.17)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수업 경험, 온라인 개학 조치 및 준비현황, 등교 개학을 위한 준비상황 및 전략 등을 공유하고 향후 교육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자간 협력 목록(2020)

일자	주요성과	비고
2.28	한국 교육부-중국 교육부 원격회담 <한중 유학생 상호 출/입국 자제 권고 합의>	
4.21	아랍에미리트(UAE) 교육부장관원격회담(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참석) (후속조치) 한-UAE 교사 화상회의 실시 (7.29)	원격회담 UAE 교육부장관 요청
4.27	교육부-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면담	전화면담
5.11	교육부장관-주한 중국대사 면담	대면회의
11.17	교육부장관-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원격회담 개최(주아르헨티나 대사 참석)	원격회담



UAE 교육부장관 화상면담



아르헨티나 교육부장관 화상면담

국제기구를 통한 교육위기 공동대응 및 글로벌 연대 동참

5월 6일 개최된 'OECD 코로나19 대응 화상회의'에서 교육부는 '한국의 온라인 개학 현황 및 등교수업 준비' 등을 발표하였다. 또한 'OECD 교육정책실행 프로젝트 원격회의(6.10~11)'에서는 한국의 '개방성, 투명성, 민주성'의 비전에 근거한 코로나19 대응,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 활용, 자발적 교사 커뮤니티 조직 등을 소개하였다. 'OECD 교육정책개혁신대화 온라인 회의(10.26)'에서는 '한국의 교사와 학교 지도자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유네스코 교육장관 화상회의(3.10)', '코로나19 대응 웨비나(3.20부터 주 1회)', '아태지역 온라인 국제컨퍼런스(7.10)',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 전문가 세션(10.20)', '2020 세계교육회의 특별회의 고위급회의(10.22)' 등 전 세계 회원국들이 유네스코를 통해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G20 교육장관 회의를 통한 협력과제 제시 및 공동선언문 채택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월 27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G20 특별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과 온라인 개학 및 등교수업 경험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준비상황을 설명했다. 각국 정부는 교육 분야에서의 코로나19 영향과 각국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정책 사례 및 국제적 교육협력 방안 논의와 함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공조 노력을 강조한 '공동선언문'을 함께 채택했다.

9월 5일 화상으로 진행된 '2020년 G20 교육장관회의'의 경우 '미래 위기 대응 및 교육의 지속성 보장', '유아교육의 접근성 향상', '교육국제화 증진'이라는 3가지 주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공동선언문도 채택되는 등 G20 국가가 함께 위기 상황에서 교육중단, 교육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의 기반을 강화하였다.



G20 특별 교육장관 화상회의



G20 교육장관 회의

예산지원



예측이 불가능하고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 확보 및 긴급 지원 등을 추진하였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으로 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입하였으며,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원격교육 기반 조성 예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나 교육기관 관계자, 교육 관련 업계 종사자를 지원하였다.

신속한 방역물품 구입 지원

교육부에서는 학교 방역 강화를 위해 1월 29일과 3월 4일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지원 수요를 적시에 파악하여 총 6차에 걸쳐 총 1,083억 원을 방역마스크, 발열감시용 체온계, 소독제, 의료용 장갑 등 방역물품 구입과 방역 활동 지원 등의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였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 특별교부금과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시도교육청 자체 사업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에 활용하였다.

2020 코로나19 관련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금 교부 현황(단위: 백만원)



정부 추가경정 예산을 통한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정부 추경을 통해서 초·중·고 및 고등교육부문 원격교육 지원,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초·중·고 원격교육인프라 구축 및 고등교육 온라인 강의를 위한 예산이 중점적으로 지원되었다.

2020 코로나19 교육부 소관 추경예산 현황(단위: 백만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 추가 인하, 실·폐업 대출자 상환 유예, 장기 연체자의 연체 이자 감면으로 저금리 혜택 지원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



비대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1,000억원 예산 증액 편성하여 237개 대학교 지원

학부모 돌봄 부담 경감



아동 특별 돌봄 지원 사업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재학생 1인당 20만원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 중학생 1인당 15만원 지원

스마트 기기 및 통신비 지원



스마트 기기 대여 제도 신청자 28.3만명 전원 대여

원격 수업을 위한 통신비 및 데이터 지원 저소득층 17.4만 명 대상 인터넷 통신비 지원

미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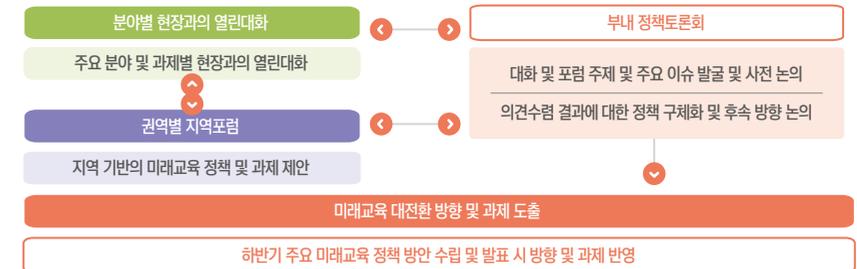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얻은 여러 가지 성과들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기 위하여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시대 미래교육을 위한 준비에도 본격 착수하였다. 특별히 교육부는 교육 현장에서 긴급한 사안들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였고,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시안)」을 발표하면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방향 모색,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추진,

코로나19 위기는 한편으로 교육 현장의 혁신을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인구구조 변화, 사회 불평등 문제,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 등 교육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향후 미래교육을 실현해나가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가 추진되었다. '분야별 현장과의 열린 대화', '권역별 지역포럼', '교육부 내부 토론회' 등 다각적인 소통을 추진하면서 미래교육의 방향과 이를 위한 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추진 체계도



'미래교육 10대 정책과제(시안) 마련

교육부는 10월 5일 미래교육위원회,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대화 등 '19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소통과 대화를 거친 결과를 종합하여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10대 정책과제 시안」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교육 안전망 강화 방안」(8.11),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 지원방안」(9.9), 「디지털 시대의 열린 평생교육·훈련 혁신방안」(9.23) 등 현장의 요구에 맞춰 분야별로 선제 발표했던 정책들을 포함하여, 향후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체계화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분야	추진목표	10대 정책과제(안)
유·초·중·고 교육	국가의 책무성, 현장의 자율성 강화	1. 미래형 교육과정 마련 2. 새로운 교원제도 논의 추진
고등·평생교육	공유와 협력을 통한 혁신 지원	3. 학생이 주인이 되는 미래형 학교 조성 4.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구축
기반 구축	미래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구축	5. 협업·공유를 통한 대학·지역 성장 지원 6. 미래사회 핵심 인재 양성 지원 7. 고등 직업 교육의 내실화 8. 전 국민의 전 생애 학습권 보장
		9.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교육 기반 마련 10. 미래형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개편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 출범

교육부는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총괄 대응하고 미래 대비 교육혁신 과제를 발굴·추진하기 위해 '미래교육 체제 전환 추진단'을 2021년 6월 출범하였다. 추진단은 개인 맞춤형 역량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융합교육과 교수학습 혁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뒷받침하는 제도·시설·디지털 통합 대응 체계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즐거로운 학교생활⁺

학교 가기 전 집에서는



30초

손씻기



매일아침 자가진단하기



의심증상 시
선별진료소·학교에 연락하기

학교에서는



항상 마스크 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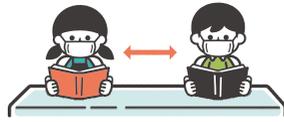
교실 입실 전, 급식실
이동 전 체온재기



책상 소독하기



쉬는 시간마다 창문열기



친구들과 거리두기



식사 시 대화하지 않기

학교에서 집에 갈 때는



마스크 쓰기



친구들과 소모임 자제하기



가능하면 바로 집에 가기

중단없는 학습을 위한
과감한 도전



대한민국

교육분야 코로나19대응